

한국어의 리듬 단위와 문법 구조

김선미(서울대 언어학과)

<차례>

1. 머리말	5.1. 분석 원리
2. 리듬 단위에 대한 논의	5.2. 분석 기호
3. 리듬 단위의 형성	5.3. 분석 방법
4. 리듬 단위와 문법 구조	6. 맺음말
5. 리듬 단위의 분석	

1. 머리말

리듬 단위란 말의 리듬이 실현되는 소리말의 단위이다. 말의 리듬은 인간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모든 인간 언어의 소리말에는 반드시 그 말 특유의 리듬이 있다. 말의 리듬은 음악의 박자에 해당한다. 음악에서 ‘강 약 중 약’ 혹은 ‘강 약 약 중 약 약’ 하는 박자가 나타나듯이 소리말에도 강하고 약한 음절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서 언어의 리듬을 형성한다. 음악에서 리듬이 하나의 마디 안에서 실현되듯이 언어에도 리듬이 실현되는 말의 덩어리가 있게 마련이다. ‘리듬이 실현되는 말의 덩어리’를 소리말의 ‘리듬 단위’(rhythm unit)라고 한다. 리듬 단위는 또한 억양이 실현되는 단위이기도 하고 의미적으로는 의미, 정보의 단위이기도 하므로 소리말의 중요한 단위이다.

리듬 단위는 학자에 따라, 말토막, 말마디, 강세구, 억양구, 운율구, 끊어읽기 단위 등 여러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으며 각각의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말토막’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한국어의 리듬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으나 실제 발화에서 리듬 단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긴 문장을 발음할 때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면 기본적으로 어절 단위로 띄어읽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 어절 단위로 끊어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 몇개의 어절을 묶어서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 때 무조건 이웃

한 어절들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에 대한 문법 지식, 말의 길이, 말의 속도, 심리적 생리적 요인 등의 언어적, 언어외적 정보를 가지고 말토막을 형성해가면서 말을 한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리듬 단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아주 짧은 문장이 아니고는 말의 속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한다면 말토막의 형성은 거의 문장의 문법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듬 단위 형성에 미치는 문법 구조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한국어의 리듬 단위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리듬 단위에 대한 논의

한국어의 리듬 단위에 대한 연구로는 이 현복(1989), 이 호영(1991)이 있고, 전 선아(1993), 광 동기(1992), 강 옥미(1992)의 연구도 대체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현복(1989)인데, 그는 한국어의 리듬 단위로 '말토막'이라는 단위를 설정하였다. 말토막이란 하나의 긴 발화가 끊김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발음되지 않고, 몇개의 더 작은 단락으로 나뉘어 발음될 때, 그러한 하나 하나의 단락이며, 말토막에는 반드시 강세 음절이 하나가 있으며, 강세 음절 홀로, 혹은 그 앞이나 뒤에 혹은 앞뒤에 무강세 음절을 거느리고 나타나는 단위이다. 말토막의 길이는 말의 속도에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속도가 빠른 말씨에서는 여러 개의 낱말이 한 말토막 속에 연결되어 나타나므로, 말토막 전체의 길이가 길어지는 반면, 속도가 느린 말씨에서는 한 말토막 안의 낱말의 수가 적으므로 말토막 전체의 길이도 짧아진다.

이 호영(1991)은 리듬 단위로서 '말토막'과 '말마디'라는 단위를 제시한다. 말토막은 끊어읽기의 단위로서 리듬 단위(rhythm unit)일 뿐만 아니라, 의미, 정보단위이며 억양단위(intonation unit)이고, 말마디란 문장 안에서 숨쉬는 단위이며, 말토막보다 더 큰 리듬마디(rhythm group)인 동시에 의미, 정보마디이다. 말마디는 또한 독립된 억양형태가 없이는 억양마디(intonation group)이며, 숨쉬기를 하는 단위인 숨토막(breath group)이다. 하나의 문장은 하나나 그 이상의 말마디들로 발음될 수 있으며, 하나의 말마디는 하나나 그 이상의 말토막으로 발음될 수 있다. 또한, 그는 문장 안에서 어디에 말토막과 말마디의 경계가 놓이며, 어떤 요인에 의해 그 경계가 정해지는지를 밝히려 하였다. 그는 말토막과 말마디의 경계는 대체로 문장의 문법구조, 말의 속도와 스타일, 초점의 영역 등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각 요소들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문법 구조와의 관계를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최근에는 운율음운론(prosodic phonology)이라 하여 운율 구조와 통사 형태 구조와의 관계를 다루는 이론이 있는데, 광 동기, 강 옥미의 연구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

여 한국어의 운율 단위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여기서 설정한 음운구(phonological phrase)나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같은 운율 단위는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인 동시에 말의 리듬 단위가 된다.

전 선아는 운율음운론의 입장에서 다소 벗어나 억양 패턴에 의해 강세구(accentual phrase)와 억양구라는 운율구를 설정하고 이것이 음운 규칙의 영역이 됨을 보였는데, 이 강세구는 이 현복의 말토막에 해당하는 단위이다. 전 선아의 운율구 설정과 운율음운론에서의 운율구 설정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선아는 전적으로 억양 패턴에 의해 운율 단위를 설정한 데 반해, 운율음운론은 주로 통사적 정보에 기반을 두고 운율 단위를 정의했다는 점이다.

학자에 따라 리듬 단위의 설정 방법과 그 개념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리듬 단위를 ‘말토막’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3. 리듬 단위의 형성

리듬 단위는 사람이 말을 할 때나 혹은 기계에서 합성음을 만들어 낸다고 할 때도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문장이 짧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발음할 수 있지만 문장이 길 때는 이를 반드시 몇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발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문장을 읽더라도 이를 몇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읽을지, 그리고 문장의 어디에서 단락의 경계를 지을지는 사람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문장을 발화할 때 리듬 단위 형성에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리듬 단위의 형성에는 아무런 규칙이 없고, 따라서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언어 생활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긴 발화를 한다고 할 때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서는 말하는이나 듣는이가 모두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리듬 단위의 경계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리듬 단위는 그 길이나 형태가 유동적이므로 모국어 화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문장에서 리듬 단위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모국어 화자의 경우, 자신의 문법 지식이나 말의 속도, 문장의 길이, 말의 스타일, 심리적 생리적 요인 등 다양한 언어적, 혹은 언어외적 정보를 가지고 리듬 단위를 형성해 나가지만 가령, 외국인이 말을 할 때나, 기계에서 합성음을 만들어 낸다고 할 때에는 리듬 단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따로 주어야 한다.

리듬 단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문장의 길이, 문법 구조, 말의 속도, 말의 스타일, 초점, 심리적 요인, 생리적 요인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문법 구조가 리듬 단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4. 리듬 단위와 문법 구조

문법 구조와 리듬 단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운율음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통사적 성분 구조에 기반을 두고 운율 단위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도 리듬 단위와 통사적 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운율음운론에서처럼 통사 구조에 의해 운율 단위를 도출해 내고 이 단위가 특정 음운 규칙의 적용범위가 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장을 발화시켜, 리듬 단위를 정하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리듬 단위와 문법 구조와의 관계를 논의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통사적 구조가 형태소, 특히 조사나 어미에 의해 거의 결정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어절별로 각 문장 성분을 분석하되 형태론적 특징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기호로 표시한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리듬 단위로 묶이기 쉬운 통사적 성분들과, 리듬 단위의 경계가 되기 쉬운 통사적 성분들을 밝혀 리듬 단위 형성에 있어서의 문법적 제약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문법 구조가 리듬 단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하므로 문장의 길이(어절 수와 음절 수)와 말의 속도, 그리고 말의 스타일을 한가지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5. 리듬 단위의 분석

5.1. 분석 원칙

1. 각 문장은 어절 단위로 분석한다.

2. 체언의 경우는 품사와 조사의 정보를, 용언의 경우는 품사와 어미의 정보를 주되 어말어미만을 표기한다.

3. 하나의 어절은 두 자리 기호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두 자리 기호는 두 가지 문법 정보를 담고 있다. 즉, 첫째 자리는 품사 정보이고, 둘째 자리는 조사나 어미의 정보이다. 이를테면 체언의 경우, 첫째 자리는 체언의 품사, 둘째 자리는 조사의 정보가 제시되고, 용언의 경우는 첫째 자리는 용언의 품사, 둘째 자리는 어미의 활용정보를 준다. 체언에 지정사 '이다'가 붙은 어절은 첫째 자리는 '이다'의 품사, 둘째 자리는 그 활용어미를 적는다.

5. 각 어절은 두 자리 기호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면 네 자리까지 허용한다. 이를테면 전성어미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나 격조사와 보조사가 연이어 붙은 경우는 이를 다 표시한다.

6. 활용어미도 붙지 않고 조사도 붙지 않는 형태, 이를테면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는 한 자리 기호로 표기한다.

5.2. 분석 기호

분석 원칙에 따라 문장을 어절 단위로 분석하여 기호로 표기하되, 용언은 품사 정보와 어미의 활용 정보를 주고, 체언은 품사와 조사 정보를 준다. 어미는 어말어미, 즉 종결어미(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연결어미(대등 연결, 종속 연결, 주용언-보조용언 연결), 전성어미(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의 활용 정보만을 주고, 보조어간(존대법, 시제)은 표시하지 않는다. 체언의 경우 조사는 격조사, 보조조사, 연결조사, 특수조사로 나누어 표기한다. 용언과 체언의 예로 각각 동사와 명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동사(V: Verb)

1. 동사 어간 + 종결어미,

*VD(V:Verb, D: Declarative Ending)

*VI(V:Verb, I: Interrogative Ending)

*VM(V:Verb, M: Imperative Ending)

*VP(V:Verb, P: Propositive Ending)

2. 동사 어간 + 연결어미

*VC(V:Verb, C: Coordinating Clause Ending)

*VS(V:Verb, S: Subordinating Clause Ending)

*VT(V:Verb, T: Concatenating Ending)

3. 동사 어간 + 전성어미

*VA(V:Verb, A: Adnominal Clause Ending)

*VN(V:Verb, N: Nominal Clause Ending)

*VV(V:Verb, V: Adverbial Clause Ending)

4. 동사 어간 + 전성어미 + 격조사

*VNS(V:Verb, N: Nominal Clause Ending, S: Subjective Particle)

*VNG(V:Verb, N: Nominal Clause Ending, G: Genitive Particle)

*VNO(V:Verb, N: Nominal Clause Ending, O: Objective Particle)

*VNC(V:Verb, N: Nominal Clause Ending, C: Comitative Particle)

*VNL(V:Verb, N: Nominal Clause Ending, L: Locative Particle)

*VNI(V:Verb, N: Nominal Clause Ending, I: Instrumental Particle)

5. 동사 어간+ 특수조사

*VQ(V:Verb, Q: Quotative Particle)

명사(Noun)

1.명사 + 격조사

- *NS(N: Noun, S: Subjective Particle)
- *NG(N: Noun, G: Genitive Particle)
- *NO(N: Noun, O: Objective Particle)
- *NC(N: Noun, C: Comitative Particle)
- *NL(N: Noun, L: Locative Particle)
- *NI(N: Noun, I: Instrumental Particle)
- *NV(N: Noun, V: Vocative Particle)

2.명사 + 보조사

- *NM(N: Noun, M: Modifying Particle)

3.명사 + 연결조사

- *NJ(N: Noun, C: Conjunctive Particle)

5.3.분석 방법

위의 분석 기호와 분석 원칙에 따라 문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바람과 햇님이 서로 힘이 더 세다고 다투고 있을 때 한 나그네가 따뜻한 외투를 입고 걸어왔습니다.

1a.바람과(NJ) 햇님이(NS)/ 서로(V) 힘이(NS) 더(AV) 세다고(AQ)/ 다투고(VT) 있을(VA) 때(B)// 한(A)/ 나그네가(NS)/ 따뜻한(AA) 외투를(NO) 입고(VC)/ 걸어왔습니다(VD).

1b.NJ NS V NS V AQ VT VA B A NS AA NO VC VD.

1c.NJ NS/ V NS V AQ/ VT VA B// A/ NS/ AA NO VC/ VD.

2.효도는 어버이 생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다하도록 계속해야 한다.

2a.효도는(NM)/ 어버이(N) 생전에만(NLM) 하는(VA) 것이(BS) 아니라(AS)/ 자기(R) 생명이(NS) 다하도록(VV)/ 계속해야(VT) 한다(VD).

2b.AB NM N NLM VA BS AS R NS VV VT VD.

‘/’과 ‘//’은 띄어읽은 곳을 표시한 것이다. ‘/’은 보통 속도로 읽었을 때 띄어읽은 곳이고, ‘//’은 빠른 속도로 읽었을 때 띄어읽은 곳이다. 다시 말해 ‘/’과 ‘//’은 들 다 리듬 단위의 경계를 말한 것인데 ‘//’이 더 강력한 리듬 단위의 경계가 된다. 1번 문장에서 하나의 리듬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NJ NS/, /V NS V AQ/, /VT VA

B/, /A NS/, /AA NO VC/, /VD/이고 리듬 단위의 경계에 나타나는 것은 NS/ V, AQ/ VT, B/ A, A/ NS, NS/ AA, VC/ VD이다. 두 어절 사이에 경계가 나타날 때는 그 경계가 단지 그 두 어절만의 통사적 특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두 어절의 앞 뒤 성분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절 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음운론적인 긴 모음의 영향 때문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만일 전적으로 그 두 어절의 통사적 특징 때문이라면, 그것은 강력하고, 필수적인 경계가 된다. 그것이 경계 어절 주변의 다른 어절들과의 통사적 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어절 수의 영향이라면 경계 주변의 몇 어절을 함께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을 통해 하나의 리듬 단위로 묶이기 쉬운 통사적 성분들과, 리듬 단위의 경계가 되기 쉬운 통사적 성분들을 밝혀 리듬 단위 형성에 있어서의 문법적 제약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어의 리듬 단위 형성과 문법 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리듬 단위 분석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한국어는 그 통사적 구조가 어미나 조사와 같은 형태소 특징에 의해 나타나므로 어절의 형태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리듬 단위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분석 체계를 가지고 리듬 단위 형성에 영향을 주는 통사적 제약을 밝혀 낸다면, 리듬 단위와 통사적 구조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규칙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사적 구조만으로는 리듬 단위 형성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없으므로, 리듬 단위 형성에 대한 통사적 제약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다른 변수, 이를테면 어절 수, 음절 수, 문장의 길이, 말의 속도, 초점 등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궁극적으로는 리듬 단위 형성을 예측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동기(1992), 운율단위에 의한 국어 음운현상의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 발음, 교육과학사.
- 이호영(1991), "한국어의 리듬," 한국어 논문집 제 28집, KBS 한국어 연구실.
- 한국전자통신연구소(1993), "운율단위 음운론 및 음운통계에 관한 연구", 최종 연구 보고서.
- 허 응(199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문화사, 서울.
- 허 응(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서울.
- Cho, Young-mee Yu(1990) "Syntax and Phrasing in Korean," in S.INKelas and D. Zec(eds.) The Phonology-Syntax Connection, 47-6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oper, W.E. and J.M.Paccia(1980), Syntax and Speech, Harvard University Press.
- Jun, Sun-Ah(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The Ohio State University.
- Kang, Ongmi(1992) Korean Prosodic Phon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